

濟州島 先住民 文化에 대한 일고찰*

—考古學 측면에서—

李 淸 圭**

I

제주도 最古住民의 흔적은 舊石器時代 유적·유물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이 시대의 先住民을 오늘날 제주도주민의 직접적인 조상으로 생각할 수는 없다. 잘 알려진 涯月邑 於音里 빌레못동굴유적·유물을 조사자의 주장대로 6~8만년전의 중기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이라 할 때, 이 시대는 *Homo sapiens neanderthalensis* 단계의 인류가 활동한 시기로서, 현대인류 즉 *Homo sapiens sapiens*와 분류상 다른 인류의 시대인 것이다.

西歸浦市 天池淵유적에서 발견된 후기구석기유물은 *Homo sapiens sapiens*의 제주도 거주를 입증하는 자료가 되겠지만, 이시대의 現生人類단계에서는 人種의 分化가 비로소 이루어졌을뿐, 民族·種族의 형성은 다음 新石器時代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 現住民의 종족상 직접적인 조상은 신석기시대단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이때에 와서 오늘날 現住民으로 이어지는 제주도 최초의 先住民文化가 이야기될 수가 있다.

그러나 제주도에서 신석기문화의 확인은 몇몇 연구자들의 조사발표가 있었지만, 단순한 地表調査에 의해 유사빛살무늬토기편을 채집한 정도의 것이고 보면 역시 이시대에서도 제주도 선주민문화를 논의한다는 것은 아직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 본고는 제주도연구회 제 1차 전국학술대회(1985. 11. 15)에서 발표된 것임.

** 濟州大 史學科 教授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현주민과 혈연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확실한 유적이 발견됨으로 해서 명실공히 최초의 제주도 선주민문화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無文土器時代に 와서이다. 大靜邑 上幕里 산이수동 유적·유물이 바로 동단계를 대표하며, 이 유적에서 출토하는 특징적인 무문토기, 즉 孔列土器와 팽이형토기요소가 복합된 토기는 同住民文化가 함경도지방에서 출발하여 한반도 중부지방에서 평남·황해도지방의 토기문화를 흡수한 다음 제주도로 전파되었다는 계통론적인 흐름을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그 絕對年代는 방사선탄소연대측정자료가 없어 말하기 곤란하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無文土器 型式 및 編年論上의 연구성과로 미루어 볼 때 기원전300년경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렬토기의 전통은 이미 신석기시대후반에 시베리아 남부지방의 토기에서 보이며 그것이 한반도에 와서는 靑銅器時代에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발전하는데 반해서 중국대륙, 만주지방, 일본열도에서는 그러한 형식의 토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적어도 이단계부터 다른 주변문화권과는 별도로 한반도 문화권에 편입되었음을 말해주는 좋은 고고학적 증거가 되겠다.

산이수동유적이외에도 공렬토기는 애월읍 郭支里貝塚 유적 2지구 최하층, 제주시 龍潭洞墳墓유적 남쪽구역에서도 발견되었다.

제주도 제 2차 선주민문화도 역시 기원전후한 우리나라 初期鐵器時代에 기본적으로 한반도지방에서 유입된 문화로서 크게 보아 두계통이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한반도 자체내에서 전단계이래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문화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중국에서 새로 유입된 외래문화적 요소를 들 수 있다. 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無文土器·磨製石器의 道具文化와 支石墓등의 墓制文化가 있으며, 후자에는 이른바 金海式土器 및 漢式鐵器文化가 해당한다.

고고학적으로 이러한 양상이 제주도를 포함해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으로 西北韓지방을 중심으로 中國 漢郡縣이 설치되면서 중

국문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그와 동시에 이러한 역사적 사건으로 한반도에는 대규모적이고도 파상적인 인구가동이 있었으며, 그 영향이 제주도까지 파급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실제로 제주도내에 이 시기에 있어 인구증현상이 있었음이 島內 해안지역 거의 전체에 걸쳐 동 단계에 속하는 유적·유물이 분포하고 그 遺物散布地 자체의 규모가 실로 광범위하다는 사실에서 쉽게 추정할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유적으로 제주시 漢川 주변의 龍潭洞·吾羅洞일대, 애월읍 外都川 연변의 光舍里구릉지역, 郭支里일대의 평탄대지유적을 들 수가 있다.

대략 기원 300년경전후 제주도 3차선주민문화가 형성될 때, 그 계기가 되는 것은 육지부문화의 새로운 파급이지만, 앞서 1차에서 2차문화로 넘어가는 것처럼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대신 전단계의 문화들보다 적극적으로 계승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때는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百濟·新羅·伽倻의 중심세력이 주변의 小國을 복속시키고 對內的으로는 강력한 고대왕권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시기로, 고고학적으로 볼 때, 그러한 세력확장의 기반이 되는 철기문화가 번성하고, 지배자의 정치적 권력과 지위를 과시하는 高塚文化가 발달하는 시기이다.

이당시 이들 중심세력권에서 발달된 토기 및 철기문화가 제주도 지방에도 파급되었으며, 郭支里貝塚 3·4지구출토의 각종 灰青色硬質土器 혹은 炆器質土器(stone-ware)와 철제유물이 이를 방증한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무문토기제작수법이 여전히 지속되어 底火度 산화염燒成의 赤褐色軟質土器(earthenware)가 성행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육지부 경우 무문토기전통이 이미 전 단계에서 거의 소멸되고 새로운 高火度 환원염燒成의 회청색경질토기로 대체되는 것과 좋은 대조가 된다.

제주도내 유적의 분포범위와 자체규모는 전단계의 수준을 거의 넘지 않으며 따라서 전단계에 비해 이단계의 인구규모라든가 하는 양적 변화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郭支里貝塚 3·4지구의 발굴결과에 의하면 문화의 질적 변화 또한 그리 크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다.

II

지금까지 연구성과에 따르면 공렬토기를 포함한 무문토기시대 사람들의 식량경제는 농경이 주가 되고 부수적으로 극히 간단한 어로·수렵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석기시대에 어로·수렵문화가 주가 되고 농경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무른 것과 대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어 왔다.

공렬토기문화의 가장 이른 단계의 것으로 파악되는 함경도지방의 純粹孔列土器文化圈에서는 신석기 시대 후기와 마찬가지로 수수·조·피 등의 발작물을 재배했지만, 제주도 공렬토기문화와 같이 평남·황해지방의 팽이형 토기문화의 요소가 복합된 한반도 중부의 變形孔列土器文化圈에서는 역시 田作에 의한 것이긴 하나 벼까지 재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同土器文化人은 발농사수준이지만 농경의 방법을 충분히 체득한 사람들이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同土器文化를 수행한 제주도 산이수동의 先住民은 보다 어로·수렵활동에 치중하였으며 동유적지대에 대규모로 형성된 貝塚를 보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양상은 환경여건상 제주도의 경우 어로·수렵에 의한 식량획득방법이 농경보다 훨씬 유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그래서 유적이 위치한 곳은 어로작업에 유리한 해안에서의 거리 20m 이내의 지점인 것이다.

오히려 농경문화의 담당자로 파악된 無文土器人들이 제주도에서만은 어로·수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는 사실은 바로 당대 제주도 선주민의 환경적응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철기문화가 보급되는 김해토기시대 혹은 原三國時代에 이제 벼농사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灌溉農法에 의한 대량 생산체제로 들어가며 한편으로는 남해안지방 및 島嶼地方에서는 무문토기시대때 빈약했던 수렵·어로활동이 또한 활발하게 재개된다. 그래서 한반도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의 패총이 형성된 것처럼 이 시대의 대규모 패총지대가 곳곳에 형성되고 제주

도도 예외가 아니어서 특히 郭支里 일대에 전국적으로 보아 가장 규모가 큰 패총유적이 형성되어 있다.

물론 이단계에 관계농사는 아니지만 제주도에서도 田作에 의한 농경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됐음은 同時期 石器遺物중에 곡물가공구가 많이 보이고 郭支出土무문토기 바닥에 콩자국이 있는 예로 보아 분명하다. 오히려 제주도 내에서 어로·수렵활동보다는 농경에 보다 치중한 주민집단의 증거도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예로 涯月邑 光令里유적을 들 수 있다.

이지역에 外都川연변을 따라서 해발 70~80m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구릉 지대에까지 유적이 형성되어 있으며, 동지역이 어로활동에 불리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이곳 출토석기 중에서 농경행위를 입증하는 掘地貝, 穀物加工具가 많고 어로도구가 드문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농경에서 얻은 식량만으로는 아무래도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래서 이지역 주민집단은 기원 300년 三國期이후에는 거의 해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 유적에서 지표조사를 통해 三國期以後의 유물이 거의 눈에 띄이지 않는 현상에서 미루어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郭支里유적의 경우는 해발 30m이내의 해안인접지역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어로활동에 보다 유리하고 地質, 地形, 用水의 여타 조건 또한 골고루 잘 갖추어져서 농경, 수렵, 목축등의 여러 部面이 고루 발달했기 때문에 同遺蹟의 존속이 三國, 統一新羅, 高麗, 朝鮮時代로 거의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다.

郭支里塚 3·4지구 조사결과에 의해 밝혀졌듯이 어로·수렵문화가 육지 지방에서는 三國時代이후 거의 소멸된 데 반해서 제주도에서는 三國時代末에 이르기까지 번성했음은 또한 농경에 불리한 제주도 환경의 제약성을 이야기 해주는 것이 되겠다.

1차선주민집단의 유적분포는 현재까지 알려진 숫자가 많지 않아 뚜렷한 양상을 읽어낼 수가 없지만 다음 2차 선주민집단의 유적분포를 보면 해발 50m이내의 해안지역에 밀집되고 그중 특히 제주도 서북부, 서남지역 즉 濟

州市, 涯月邑, 翰林邑, 大靜邑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은 해안지대임으로 어로활동에 유리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토양의 풍화도, 비옥도가 높고 土層의 두께가 두터운 평탄지대로서 보다 농경에 유리하고 또 한편으로 河川 및 湧泉水가 발달하여 用水條件이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제 2차 선주민집단이 촌락을 이루고 있었던 지역은 계속해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제주도 주민의 중심생활 근거지였으며 이러한 住居分布의 한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양상을 수렵·어로문화의 지속적인 발달과 함께 제주도가 자연환경의 제약에 적응하는 先住民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III

우리나라에서 氏族 혹은 部族의 血緣中心의 원시평등사회에서 벗어나 초보적이거나 정치적 권력을 소유한 지배자 혹은 族長(chiefdom)이 존재하는 族長社會의 출현은 일반적으로 支石墓가 축조되던 시기인 것으로 파악된다. 支石墓의 被葬者가 바로 족장 신분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그러던 것이 무문토기시대후반에 가면 청동기문화가 대량 보급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력자——土壙石槨墓의 被葬者——가 나타나 兩立하는 양상을 보인다.

제주도의 경우 제 1차 선주민집단인 공렬토기 사용인은 육지부의 예를 보아 역시 지석묘를 축조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제주도 지석묘의 대부분은 다음 2차문화집단의 소산으로 파악되고 1차집단의 묘제로 확실한 것은 제주시 龍潭洞墳墓 남쪽구역의 石槨墓 共同墓地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용담동 석곽묘자체가 원래는 地表上에 노출된 上石을 갖춘 지석묘일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일단은 이단계에서 제주도에서도 족장사회의 원초적인 모습이 갖추어진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

무문토기시대 후반의 靑銅器文化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볼 때 제주도에 적극적으로 유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육지부경우에도 청동기문화가

집중적으로 보급되는 지역은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신석기시대나 철기시대 이후 문화중심지로 각광을 받은 漢江文化圈지역에서 이 청동기문화는 거의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유물출토상황을 보면 공렬토기문화층에 이어 철기문화층이 형성되는 양상이 곳곳에 보이며 동일한 현상이 제주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청동기문화의 혜택을 받지 않고 막바로 기원전후해서 철기문화가 제주도 지방에 유입되면서 石器文化의 전통을 강하게 갖고 있는 支石墓社會와 다량의 그러한 외래철기문화를 소유한 石槨墓・甕棺墓社會가 제주도에 공존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후자의 경우 이 당시 한반도 중심문화권과 遠距離무역을 통해서 보다 우월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교역은 문헌상으로는 三國志魏志 東夷傳의 州胡기록에 보이고 考古學的으로는 濟州市 山地港出土 漢代 화폐유물과 龍潭洞墳墓 북쪽구역출토 철기유물이 입증해준다. 그리고 제주도에 對한반도 교역중심지는 이들 교역증거물의 출토지점을 보아 지금처럼 제주시 일대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지석묘집단과 철기문화집단간의 갈등은 그렇게 크지 않았으리라 고 보이는 바, 그 증거로서, 龍潭洞 동일분묘구역내에서 철기소유집단이 前代 공렬토기인의 지석묘구역을 일단 石列경계로써 보호구획하고 '그에' 잇대어 무덤을 축조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제주도 해안전역에 분포한 이시기 유적집단간의 상호관계는 자료가 충분치 않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으나, 墓制뿐만 아니라 土器・石器등에 공통된 양상을 많이 보이므로 서로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인식과 함께 교역 및 通婚關係 등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러한 사실은 前段階의 남제주 공렬토기와 북제주 공렬토기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전자에는 팽이형토기요소가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후자에는 전혀 없다—— 그래서 서로간에 일정한 접촉관계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과 다른 현상이다.

결론적으로 동단계에 와서 제주도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곳곳에

많은 촌락이 자리잡고 있었고 서로 일정한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그중 정치·경제적으로 우월한 집단이 대두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기원 300년경 3차문화시기는 앞서 이야기 했듯이 한반도 중심문화권 지역에서는 고대 왕권국가가 확립된 시기이다. 제주도의 경우는 이단계에 강력한 실력자가 나타나 전제주도지역을 정치적으로 단일하게 結成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문헌에서의 마찬가지로 현재까지의 고고학적인 성과로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고고학적으로 규명하려면 무엇보다도 당대의 古墳文化의 실체를 파악하여야 할터인데 아직 그러한 자료가 확보된 바 없다.

다만 전단계에 龍潭洞에서 다량의 철제무기를 副葬한 堅穴石槨墓가 발견된 바 있고, 그래서 지석묘사회보다 정치성이 강한 권력자의 등장이 있었다고 파악할 때, 한걸음 나아가 同 3차문화단계에서는 보다 강력한 정치적 실력자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 본다. 그래서 문헌에 三國과 관련해서 耽羅의 기록이 전하는 것처럼 古代耽羅國의 실체가 이단계에 와서 구체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